

比較文學的 方法과 國文學研究

金 淳 中

<目 次>

- | | |
|---------------|-----------------------|
| 1. 머리말 | 2.3 우리 나라의 비교문학 |
| 2. 비교문학의 현황 | 3. 국문학연구를 위한 비교문학의 방향 |
| 2.1 프랑스의 비교문학 | 4. 맺음말 |
| 2.2 미국의 일반문학 | |

1. 머 리 말

국제비교문학회가 창립된 이래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나 비교문학이란 용어가 대체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정확한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비교문학은 주로 “국제간의 문학적 관계의 역사¹⁾”로서 이해되었고 그 주요과제를 영향관계의 기술에서 찾았다. 그래서 비교작업은 과학적 가치와만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또한 영향과 차용 등을 발견하고 이어서 한 작품을 다른 작품으로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은 서구의 비교문학의 주종을 이루는 프랑스의 방뎀쟁이나 기야르 혹은 이들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矢野峰人, 太田三郎 등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견해이다.

1950년대에 국문학계에 비교문학적 방법이 개진된 이래 이 방면에 대한 관심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실제로 비교문학적 연구가 진행돼왔고, 그 대부분이 위에서 언급한 실증주의적 기초 위에 영향론을 위주로 하는 프랑스식 비교문학에 의존해왔다.

1960년대에 한층 적극적인 연구가 시도돼오다가 1970년대 이후 주목할 만한 업적들이 눈에 띈다.²⁾ 1979년 8월 20일부터 1979년 8월 21일까지 제9차

1) M. F. 기야르, 全圭泰 역, 《比較文學》(서울: 正音社, 1977) p. 9.

2)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국제비교문학회의가 오지리의 인스부룩에서 열려 세계적 석학인 르네 웰렉, 한스, R. 아우스, 베르너 프리드리크 사이틀러 등 전세계 35개국에서 800여 명의 비교문학자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인 학자들³⁾이 참석하여 이중 6명이 논문을 발표한으로써⁴⁾ 국제학계에 주목을 끈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비교문학이 활발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학계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문학계에서는 비교문학에 관한 이론 및 실제적 연구가 부진하므로 이 방면에 대한 적극적 연구가 아쉬운 실정이다.

비교문학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은 연구자의 입장과 커다란 연관성을 가지며 대상을 자각하는 방식, 대상선정의 기준, 대상을 파악하는 개념이나 범주, 그것을 조작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 연구자의 의도 혹은 무의식적 태도는 때때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을 도외시한 채 어떤 이론을 접한다면 피상적인 이해에 만족하거나, 만일 그 이론에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감춰져 있다면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위험을 자초한 것이다.

이론이 개념과 그 대상의 일치를 인식목적 이상으로 삼고 있다면 대상 자체가 변하고 있을 경우, 개념 역시 변해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론은 실제연구를 통해 부단히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이니만큼 완전무

金學東, 《韓國文學의 比較文學의 研究》(서울: 一潮閣, 1972).

李裕榮의 2人, 《韓獨文學比較研究》(서울: 三英社, 1976).

金容稷, 《韓國近代詩에 미친 海外詩의 影響》, 《韓國近代文學의 史的 理解》(서울: 三英社, 1977).

全圭泰, 《韓國神話와 原初意識, 그 比較文化論的 考察》(서울: 二友出版社, 1980).

3) 여기에 참가한 학자들은 金東旭, 申一熙, 申東旭, 李裕榮, 丘仁煥, 이상경, 全圭泰교수 등이다.

4) 발표자 및 논문제목은 다음과 같다.

申一熙, 〈아브라함의 웃음에 표명된 히브리적 가치〉Hebraic Value as Manifested in the Laughter of Abraham.

申東旭, 〈한국근대시에 있어서의 受難의 心像〉(Images of suffering in modern Korean Poetry).

全圭泰, 〈韓龍雲 詩의 比較文學的 考察〉(Comparative Literary Study of Han-yong Woon's poetry with Influences of Hyangga and Tagore in mind).

이상경, 〈日本 能樂이 20세기 유럽 연극에 미친 영향〉(Influences of the Japanese no-play upon the European Theatre of the 20 th Century)

金禹昌, 〈한국소설의 口承時代〉(narrative Time in the Korean Novel)(김교수의 불참으로 신동욱교수 代讀)

결한 방법론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마치 자기몸을 재 속에 태워 새로이 살아나는 불사조와 같은 것이다.

학문의 이론이 지나는 이와 같은 속성을 염두에 둘 때, 본고에서 모호하게나마 규정되는 개념 역시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본고는 비교문학에 관한 이론면의 논의에 치우쳐 극히 추상적이라고 하는 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학적 현상을 토대로 하는 연구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연구가 착실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입장이 분명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법론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믿기 때문에 본고가 썩어짐을 밝힌다.

논의의 전개는 우선 비교문학의 중심이 되고 있는 프랑스식 비교문학, 미국의 일반문학을 검토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195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입된 비교문학의 여러 양상을 검토하되, 1950년대 이후 1960년대까지는 자주 논의되었던 터이므로 1970년대 이후에 중점을 두어 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국문학연구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비교문학의 현황

2.1 프랑스의 비교문학

실증적, 문헌학적 방향에 입각한 영향연구를 기조로 하는 프랑스의 비교문학이 총괄된 것은 1931년에 간행된 방머제의 《比較文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비교문학에 대해 적잖은 비판이 가해졌고, 프랑스국 자체내에서도 르네 에띠앵블 같은 이는 프랑스의 비교문학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교문학자는 “백과사전적 친분이 부여되고 서기 2천년경에 세계에서 쓰여질 언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몇 가지라도 곁들여 있고 내면적인 체험을 문학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⁵⁾고 하면서 <비교란 이치가 아니다>⁶⁾라는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기야르의 《비교문학》(1969)이 나오면서 더욱 집중적인 비판이 가해졌는데 여기서도 에띠앵블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러 나라 문학 사이의 관계, 문학교류에 대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행하는 데에만 급급한 프랑스의

5) René Etiemble, *Comparison n'est pas Crise de la Lujéraoure*, Comptée, Revue de Littérature comparée, 1963).

6) 위의 논문

비교문학이 변모를 겪게 되는 맹아가 되었다.

에피앙블 외에도 까레, 장 후라빠에 등이 실증주의에 의해 속박된 프랑스의 비교문학적 방법에 비판을 가했다. 실증주의에 의한 프랑스의 비교문학이란 쉽게 말하면 영향관계는 기록으로 나타난 외적 증거의 포착이 이루어진 연후에 결정된다는 것으로, 한 수신자가 어떤 발신자와 연계되는가는 일기, 서한, 대담 기타 친지 등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실사 문학 사이에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것을 곧 영향의 결과로 計定하지 않는 것이다. 두 문학 사이의 유사성은 우발적으로 개재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프랑스의 비교문학은 바로 이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까레는 “확실한 텍스트, 결정적인 상사점, 의심할 바 없는 사유가 없는 한, 計定 불가능한 것을 측정하는 것처럼 미묘하며 부질없는 일은 없다”⁷⁾고 했다. 이처럼 프랑스의 비교문학은 실질적 증거를 통해서 영향이 논의되고 따라서 이것을 실증적 태도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비교문학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 최근간은 끌로드 뷔쇼와 앙드레 루소의 공저인 《비교문학》(Littérature Comparée)(1967)이다. 여기서 “비교문학의 守備 범위 안에 사상사, 비교심리학, 문예사회학, 미학, 일반문학 등을 포함하여 비교문학은 인간 정신의 특수기능으로서의 문학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비평, 철학 등에 의해 국제적 규모의 문학현상을 분석,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여기고 그에 따라 문학의 국제적 조류, 일반문학, 사상사, 문학의 구조주의 등도 연구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⁸⁾

이렇게 볼 때 방 며젠이나 기야르를 중심으로 하던 프랑스의 초기 비교문학과 최근의 동향은 매우 다르나 근본적으로 실증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실증적 태도와 아울러 문학과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⁹⁾이 프랑스의 비교문학과 미국의 일반문학이 판이하게 다름을 설명하는 예가 된다.

7) M. F. Guyard, *La Littérature Comparée* (Presses Univ. de France, 1969). p. 2.

8) 全圭泰, 《比較文學》(서울: 二友出版社, 1981). p. 35

9) 1956년 3월에 보르도에서 열린 제1회 프랑스비교문학회의에서 문예아노는 문학과 다른 학문과의 관계를 일반문학 속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1963년에 다른 분야에 관심을 보인 주목할 만한 논문들¹⁰⁾이 보임으로써 이뤄진 문학연구의 획기적인 확대는 문학과 다른 예술부문과의 교섭사의 시도로써 비교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프랑스식 비교문학과 이의 비판에서 일어났다고 보이는 미국식 일반문학과 그동안 방법론적으로 대립관계에 놓여온 셈이지만, 최근 들어 프랑스 국내에 미국식 방법론을 원용하는 학자, 비평가가 상당수 있을 뿐 아니라, 평형을 이루던 프랑스 비교문학과 미국식 일반문학과는 비교문학연구의 확대로 점점 거리가 좁혀져 상호협력단계에 이르고 있다.

2.2 미국의 일반문학

미국의 일반문학과 프랑스의 비교문학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어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프랑스식에서 중시하는 증거 곧 의적 사실 내지 기록은 미국식 일반문학에서는 그 의미가 거의 없는 셈이다. 여기서는 비교와 영향은 문학연구의 한 방편인 것이다. 문학연구의 기본은 작품 자체라는 것이 중시되므로 그 출발과 화귀점이 작품이다. 그러므로 일반문학에서 말하는 일차적 증거는 작품 속에서 포착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며, 그래서 이를 내재적이라고 한다.¹¹⁾

그런데 이러한 일반문학적 입장에서 두 문학 사이의 유사관계가 아주 우발적일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¹²⁾

史的으로 보아 미국의 일반문학은 파리대학의 발당스페르제가 하버드대학 등지에서 비교문학을 강의하면서(1935—1945) 본격화되었고, 1947년에 《비교문학》誌가 간행되고 1948년에 하버드, 예일 양 대학에 비교문학과가 설치

10) L. Hauteceour, *Littérature et peinture en France du XVII, an XX, Siecle.* reedition, A. Colin 1963

L. Guichard, *La Musique et les lettres en France au Temps du Wagnerismus,* P. U. F. 1963

11) René Wellek, *The Crisis of Comparative Literature, concepts of Criticism,* Yale Univ Press, 1973, pp. 293—294.

12) 자주 인용되는 예를 보자. 기야르는 알퐁스 도오테의 작품에는 E. 디킨스의 것에 대비될 만한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도오테가 디킨스를 전혀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영향관계는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방 러켄은 임실의 작품은 조르즈 상드의 작품을 차용한 바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주르 크메르트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임실은 상드를 접할 바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에 주목되는 것은 유럽에서 어빙 배빌, T. S. 엘리엇, 라후케 이디오 현, 에즈라 파운드와 같은 학자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학문의 체제가 더욱 굳혀져 갔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일반문학은 르네 웰렉과 오스틴 웨켄의 《문학의 이론》에서 시도되고 있는 바, 일반문학적 지침으로 향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비교문학이 갖는 지역적인 제약과 연대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동서문학의 비교에 그 최후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비교문학에서는 국제간의 영향관계가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만 문학 상호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면, 미국의 일반문학은 국제간의 영향관계를 전제로 한 문학 상호간의 비교가 아니라, 그러한 전제 없이도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문학작품이 지니고 있는 내용적, 미학적 관련성을 구명하고 동시에 문학 이외의 다른 예술분야와도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비교문학과 미국의 일반문학 사이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차이는 앞에서(2.1) 이야기한 외에도 방법적인 점에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비교문학은 국민문학사의 일부로서 방법적인 분야일 뿐 독립된 학문은 아니나, 미국의 일반문학은 문학사와 대치하여 독립된 하나의 학문이라는 점이다.

프랑스의 비교문학은 두 나라 이상의 작품과 작품간에 접수된 영향관계 원천의 구명에 그 목적이 있다면, 미국의 일반문학에서는 문학을 하나의 총체로 생각하고 작품과 작품이 지닌 공통적 특질을 구명하여 문학의 세계성 즉 문학의 보편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웰렉이 언급한 것처럼 온갖 문학적 창조와 경험이란 “하나의 전체라고 하는 의식으로서 모든 문학을 국제적인 시야에서 연구하는 것”이란 관점에서 미국식 비교문학의 관점은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웰렉의 이론은 미국학계에 영향력을 미치어 영향연구에서 외견적인 사실에만 얽매이지 않고 이를 극복하여 가치를 묻는 자세가 중요시되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 중 특히 영향연구에서 수용자측의 수용자세, 그 정신형성, 작품에의 結晶 등이 극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러한 때문이다.¹³⁾

르네 웰렉이나 D. 헝거, H. 더어넬 등을 대표로 하는 미국의 비교문학은 그 폭이 넓고 대담하며, 최근 들어 다른 예술분야와의 비교연구가 활발

13) Donald Fanger, *Dostoevsky and Romantic Realism*, Harvard Univ. press, (1965)와 같은 것은 대표적 업적이다.

하여 그 업적도 눈에 뵈 만큼 많다.¹⁴⁾

2.3 우리 나라의 비교문학

비교문학이란 용어가 우리 나라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趙潤濟 박사의 《國文學史》(1949)에서다.

趙박사는 이 저서에서 Posnett의 《比較文學》(1886)의 문학의 정의부분을 인용하였을 뿐 이것은 비교문학의 본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저서에서 趙박사가 비록 비교문학이라는 방법론에 관하여 폭넓게 이해를 하지 못했으나, 이 방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영향론을 펴고 있다.¹⁵⁾

그런데 비교문학에 관한 연구자의 입장이 올바르게 정립된 상태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므로 국문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비교문학에 대한 논의의 기점을 1955년 金東旭 교수의 <새로운 文學研究의 方向>, 李慶善 교수의 《比較文學序說》에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 도입된 초기에는 올바른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채 흔히 실제 연구에 시도되기도 하는 것인만큼 필자는 비교문학의 논의의 기점을 趙潤濟 박사의 《國文學史》에로 소급시킬 수 있다고 본다. 도남문고에 의하면 趙潤濟 박사는 일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문학연구서적을 구입하여 섭렵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이미 1892—1893년경 坪内逍遙의 《比照文學》 강의¹⁶⁾에서 포스네프트의 비교문학의 이론을 기초로 작곡문학의 연구에 비교방법의

14) René Wellek, ① Theory of literature (Austin Waren과 공저, 1949)

② Concepts of Criticism (1963)

③ A History of Criticism (1965)

④ Discrimination 1970

Werner P. Friedrich, Outline of Comparative Literature(Auvia H. Malone와 공저)

Leo spitzer, Linguistics and Literary History, Essays in Stylistics. (1948)

Harry Levin, ① Power of Blackness (1960)

② Reflections, Essays in Comparative literature (1966)

G. N. G. Orsini, Coleridge and German Idealism (1969)

Ruben Arthur Brown, on Translations (1959)

Newton P. Stallknecht, Comparative literature, Method and Perspective (1961)(Horst Frenz와 공저)

Waldo Monor, Studies in Comparative literature (1962)

15) 抽稿 <生과 Ieben— 趙潤濟와 Wilhelm Dilthey의 文學研究方法 比較研究>(영남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pp. 12—18 참조

16) 太田三郎, 《比較文學》(研究社, 昭和 42)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齋藤一寬의 考證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와 더불어 1910년 F. 롤리에의 《比較文學史》가 번역되어 포스트라트의 비교문학》과 같은 경향의 이론으로, 진화론과 더불어 한 나라의 문화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국제간의 건필한 상호관련성 위에 발달된다는 의식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趙潤濟박사가 《國文學史》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문학은 고립된 국문학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문학과와의 관련하에 연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이러한 일본학계의 당시의 조류와 무관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이미 피태가 말하는 소위 세계문학적 관점의 맹아가 엿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문학은 외국으로 스스로를 향하게 할 필요를 주기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피태의 세계문학적 관점은 곧 자국문학에 대한 자각과 아울러 知的 昇경의 철폐, 외국문학과와의 자유로운 교류에 의한 문학의 공통이념을 회구하고 있는 것이다.

金東旭교수는 1955년 5월 20일자 <中大新聞>에 <새로운 文學研究의 方向>—比較文學小考—을 발표하여 새로운 문학연구방법론으로서 비교문학적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李慶善교수는 <比較文學序說>(1955. 사상계 9월호)에서 프랑스 비교문학의 이론을 중심으로¹⁷⁾ 비교문학의 의의, 성립과 발전, 분야와 방법, 전망 등을 논하면서 비교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比較文學》(부산국제신문사 출판부간행, 1957. 7)을 단행본으로 내고 이론소개는 물론 중국문학과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를 폈다.

이 외에 다른 여러 학자들이 논의하여¹⁸⁾ 1950년대는 특별히 주목되는 시기다. 그것은 일제 식민지치하에서 해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과 아울러 지금까지 주도해오던 국문학연구방법을 반성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정립해보자는 뜻에서 서구문학의 방법론이 국문학연구에 지배적으로 활용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비교문학에 관한 관심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1957년 金東旭교수에 의해 방 며권의 《비교문학》이 번역되면서 이 책의 후기에 밝혀져 있듯이 외국문학의 수용양태를 검토하는 면에서 국문학의 유산

17) 방 며권과 기야르의 《比較文學》, 小林正의 《比較文學入門》, 日本 比較文學會 편 《比較文學序說》 등을 참고한 것

18) 白鐵, 申東旭, 異河潤, 鄭寅燮, 朱曜燧 등이 신문지상에서 혹은 국어국문학회 비교문학연구회 등에서 발표함.

정리의 방법으로서 비교문학은 문학론자의 상식이 된 셈이다.

프랑스의 비교문학적 방법에 의한 원천연구로서 鄭漢模교수의 <孝石文學에 나타난 外國文學의 影響>(《現代作家研究》에 수록된 것)이 발표된 것은 역시 1959년이다.

이렇게 하여 이 무렵까지 주로 우리 국문학계에서 시도되어 온 것은 프랑스식 비교문학이었는데, 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한 轉機로서 1959년 9월 白鐵, 金秉喆교수 공역의 《문학의 이론》(원저자는 르네 웰렉임)이 출간됨으로써 미국식 일반문학이 소개되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 접어들어 비교문학연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 金澤東교수의 《韓國文學의 比較文學的 研究》(1972)와 같은 저서는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1973년 全圭泰교수의 《비교문학》(기야르 원저, 정음문고 5, 정음사 간행)이 번역되었으며 1975년에 李慶浩교수의 《韓國比較文學論考》, 그리고 1976년에 《三國誌演義의 比較文學的 研究》가 저술되었다.

또 같은 해에 李裕榮, 李在銑, 金澤東교수 등 3인의 共著 《韓獨文學比較研究》가 나와 국문학전공자와 외국문학전공자가 공동협력하는 소위 *Zusammenarbeit*의 성격을 띤 것으로 최근 국제학계의 동향에 뒤처지 않은 면모를 과시했다.

1978년 崔元植교수의 <比較文學斷想>은 비록 짧은 논문이나 국문학의 독자적 발전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비교문학이 논구되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방법론적 반성을 꾀하고 있다.

한국의 비교문학이 1970년대에 들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본격적 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하는 점은 지난 1979년 8월 20일부터 1979년 8월 24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룩에서 열린 제9차 국제비교문학자회의에 한국의 대표가 7명이나 참석하여 金東旭교수를 제외한 6명이 주제발표를 한 일이다.¹⁹⁾

따라서 1950년대와는 다른 각도에서 1970년대는 각별히 주목되는 시기다. 이 시기는 프랑스식 비교문학이니 미국식 일반문학이니 하고 양자를 택일하

19) 이 때 발표된 연구논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金東旭, 《國文學概說》(1962)

白鐵, 《文學概論》(1963 개정판)

金烈圭, <韓·日 近代詩의 一般文學的 考察>(1962)

宋穉, 《詩學評傳》(1962)

20) 이 회의의 참석자 및 발표내용은 註 4) 참조.

는 것 혹은 양자의 조화를 통해 방법론적 종합을 이루는 등 비교적 다양한 방법론이 시도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18세기말에서 19세기, 20세기초의 불란서의 비교문학, 2차대전 이후의 미국의 일반문학, 최근 들어 레마크가 창도한 폭넓은 견해 즉 비교문학의 한 나라의 영역을 초월한 문학의 연구임과 동시에 문학을 다른 여러 분야와의 관계하에 연구하는 학문으로 보는 비교문학의 시대적 추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방법론은 시대별, 나라별, 역사적 상황, 문학연구의 상황과 함수관계를 지니고 발전함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비교문학은 연구사적으로 보아 1950~1960년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주 논의되어 왔으나, 1970년대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문학연구를 위한 과거의 반성이라는 점에서 1970년대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1970년대에 나온 업적 중 편의상 필자가求得할 수 있었던 자료의 범위 내에서 그 성격을 가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기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金學東, 《韓國文學의 比較文學的 研究》(一潮閣, 1972)

이 저서는 序에서도 밝혀져 있듯이²¹⁾ 프랑스식 비교문학에 의하여 연구된 것이다. 이 저서는 이론과 실제로 나뉘어 있어서 이론편에서 우선 비교문학의 이론을 프랑스의 비교문학을 밑받침으로 하여 그 개요를 적고, 다음에 한국어에서 시도되어야 할 비교문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골자는 ① 우리의 문학연구에 적용될 독자적 방법론을 모색하자는 것 ② 국문학연구자와 외국문학연구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문학연구회로 확대시켜 연구해 보자는 것 즉 외국문학연구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과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국문학연구자들은 우리의 문학을 분석하고 종합, 정리하여 그 결과를 세계적인 무대로 향하게 하자는 것²²⁾ ③ 비교문학의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는 비교문학적 기본이론의 체계화립, 자료로서의 서지목록작성 ④ 한국의 비교문학적 작업을 크게 둘로 나누어 우리의 고전문학과 중국 및 인도문학

21) 참고로 그 서문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比較文學은 文學史의 한 分科이다”라고 한 故 J. M. 까레 교수의 말은 당시 나의 腦裏에서 맴돌고 있다. 이 말은 比較文學을 공부하면서부터 나를 지켜왔고 또 앞으로도 얼마간은 더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

22) 이러한 관점은 미국학계에서 최근 논의되는 소위 팀워크, 심포지움, 디스커션 등에 부합되는 것인데 金교수는 실제로 《韓國文學比較研究》I을 통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과의 비교연구와 우리의 근대문학과 일본 및 서구문학과의 비교연구로 하고, 연구입장은 수신자 즉 원천적 연구의 입장을 취하자는 것²³⁾이다.

이렇게 하여 金교수는 최근 국제학계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기본 입장은 프랑스식 비교문학에 국한시키고 있다.

2) 李裕榮, 金滄東, 李在鎭, 《韓獨文學比較研究》(三英社, 1976)

여기서는 비교의 목적을 ① 상호이해와 정신적 유대 ② 의식변화의 규명 ③ 독정을 통한 본질규명에 두고, 비교의 논거를 ① 전통적 비교문학의 관점 ② 피터의 세계문화적 관점이라는 데 두어 세계문학의 테두리에서 한국문학의 근원적, 조시간적 보편타당성을 탐하여 인류의 이념적인 공동재산을 고찰하고자 하는 자신의 위치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문학은 외국문학의 이입과 수용 및 영향이라는 관점과 또한 세계문학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 한국문학의 참된 본질규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²⁴⁾

이것은 영향론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식 비교학적 근거 위에 외국문학전 공자가²⁵⁾ 제공하는 독일 비교문학의 이론, 피터의 세계문화적 관점 등이 합하여 조화를 이뤄나간 결이 특징이다. 그러나 연구의 실제에서는 영향관계에 치중한 프랑스식 비교문학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독일문학의 수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① 독일문명과의 접촉 ② 독일문학의 이입 ③ 피터의 이식과 그 영향 ④ 실러와 개혁기의 지향적 역사전기문학 ⑤ 소재로서의 독일낭만주의 ⑥ 독일낭만주의가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 ⑦ 한국현대시와 관계 등으로 나누어 논술하고 있으나 번역 및 이입사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고 세부적인 대비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그러나 이 저서가 주목되는 업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의 영미문학 일반도의 국문학연구사에 비하여 독일문학의 수용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촉구시킨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문학은 그 수용의 폭이 매우 좁고 빈약할 뿐 아니라 이에 따라 국문학계에서도 적극적인 연구가 적었던 실정인데 이 저서가 출간됨으로써 국문학연구자들에게 독일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셈이다. 또한 비교문학에 관심있는 후학들에게 연구과

23) 동저서의 pp. 46-49 참조

24) 동저서의 pp. 21-28 참조

25) 이 책의 저자의 일인인 李裕榮교수는 독문학 전공자로서 비교문학분야에 다수의 업적을 내고 있고 1979년 제9차 국제비교문학자대회에 참석한 한국대표의 한 사람이다.

제를 제시하고 있는 점도 있어 의의있다.²⁶⁾

3) 金容稷, <韓國近代詩에 미친 海外詩의 影響>, 《韓國近代文學의 史的 理解》(三英社, 1977)

이 논문에서 金교수는 방법론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프랑스식 비교문학과 미국식 일반문학이 갖는 각각의 난점을 지적하고 이 두 입장을 조화, 지양하는 형태로서의 영향론을 논하고 있어 주목된다.²⁷⁾

즉 영향론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작품 자체에서 포착되는 상관관계유무의 검토와 아울러 작품 외적인 문제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金교수의 사고의 근거를 이루는 것은 미국식 일반문학이 아닌 것이다.²⁸⁾

특히 영향의 유형을 ① 영향 ② 암시 ③ 모방 ④ 번안 ⑤ 차용 ⑥ 표절로 나누고 이 유형 사이에는 서로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정도의 차이만 날 뿐이므로 여러 유형을 포괄하는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주장한다.

사실상 영향이란 복합적인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유형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구별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주어질 수 없다.

국문학이 외국문학과 갖는 관계를 고찰하려면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 즉 전신자로서의 일본문학이 반드시 고찰되어야 하고 또한 국문학에의 해외문학이입경로를 뚜렷이 밝힐 수 없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프랑스식 비교문학 혹은 미국식 일반문학을 전적으로 택할 수 없는 우리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절충적인 방법론을 주장하는 金교수의 관점은 일견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26) 일례로서 독일의 에카르트교수가 시사한 바 있는 피히테의 자연철학과 낭만주의의 자연철학이 한국낭만주의운동에 미친 영향(p. 59)에 대해서는 이 저서에서도 분석, 고찰되고 있긴 하나 문학과 철학과의 관계 즉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학과 다른 분야와의 관계구명에도 조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27) 동논문 pp. 86—97 참조

28) 그는 해외문학과 상관관계가 포착되면 내재적 증거와 아울러 외재적 증거도 함께 채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예를 르네 뮐렉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인용하고 있다. (p. 97)

나는 藝術作品的 研究를 內的인 것으로 그리고 作者의 삶이나 社會와 그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것을 外的인 것으로 指稱해온 터이다. 하지만 이 區別이 作品과 背景論의 相關關係가 등한시될 수 있다거나 경멸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內的인 研究가 素朴한 形態主義나 要領不得의 唯美主義를 뜻하는 것일 수도 없다.

4) 崔元植, 〈比較文學斷想〉, 《韓國學論集 6輯》(啓明大學校韓國學研究所, 1978. pp. 157~165)

이 논문은 국문학연구에 기여할만한 올바른 비교문학적 방법론을 촉구하기 위한 논술인데, 비록 간략한 것이긴 하나 비교문학에서 지금까지 영향문제를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만 파악하고 국문학의 주체적 요청이란 관점에서 이해되지 못한 기존연구에 대하여 반성을 추구하고 있다.

崔교수는 우선 ① 독일의 주제사 ② 블란서의 비교문학 ③ 미국의 일반문학 등으로 나누어 18세기말에서 최근까지 서구비교문학의 연구사를 개괄하면서 그 결과 비교문학이 그 때 그 나라의 문학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모했으며, 각국 문학의 입장에 따른 독자적 이론이 심각하게 모색되고 있음이 주목될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50년대 한국비교문학의 초기 도입과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金東旭, 李慶善 양교수의 글을 대상으로 삼고, 이식사관과 字句物泥主義에 지배되어 국문학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에 빠짐으로써 국문학연구에 비교문학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축시켰다고 비판했다.²⁹⁾

그리하여 우선 국문학이 그 내재적 동력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해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비록 비교문학에서뿐만 아니라 국문학연구 일반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연구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 입장임이 분명하다.

5) 金奎泰, 《比較文學》—國文學의 研究(二友出版社, 1981)

이 저서는 지금까지 국문학지에 나온 비교문학에 관한 저서 가운데 종합적인 最近刊이라는 점, 그리고 1970년대를 결산하고 1980년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이다.

기존연구에서 주로 취급된 것은 프랑스식 비교문학, 미국식 일반문학, 한 걸음 나아가 독일의 비교문학, 일본의 비교문학이 고작이었는데, 이 저서에는 외에 언급된 나라들 외에 소련 및 동구권의 비교문학에 관한 세계적 位相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존업적보다 두드러진 점이다.

특히 金교수의 비교문학적 관점이 분명히 드러난 것은 이 저서에 수록된 (pp. 335—344) 제9차 국제비교문학자대회에서 발표한 金교수의 주지발표³⁰⁾

29) 동논문 pp. 163—164

30) 金奎泰교수의 슬회에 의하면 “필자의 발표 가운데 향가의 작자와 韓龍雲과의 비교연구는 한 나라 시인간의 통시적인 어프로우치의 한 시도로 지적되기도 했다”(동저서, p. 128)고 하여 국제학계에도 관심을 끌었다.

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쏜교수의 견해는 1970년대 우리 나라 비교문학계의 한 면모를 나타내주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간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주제발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작가 한용운에 대한 연구를 자국내의 전통적 계승면에 밀반침을 두어(종적 연구) 신라의 향가 “제망매가”와 연관지워서 비교연구하고 동시에 횡적(공시적) 연구로서 타골의 “기탄자리”와 비교연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국문학계에서 비교문학적 연구는 주로 외국문학과와의 영향관계에 치중하여 논의돼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구는 최근의 국제비교문학계의 동향에도 뒤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논문이 아닐까 생각된다.³¹⁾

다만 한 가지 불분명한 것은 문학과 다른 영역과의 관련하여 비교연구되어야 한다는 최근의 비교문학계의 동향에 관하여 얼마만큼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이다. 어떠한 주제발표에 나타난 짤막한 요지에 의하면 韓龍雲과 타골의 시와 동양사상의 전통(the tradition of oriental thought), 불교적 교리체계와의 관련하여 간단히 논급되고 있어 역시 비교문학의 영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쏜교수의 연구입장은 대체로 프랑스식, 미국식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태도를 지양해야 함을 레마르크의 주장³²⁾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교문학자들이 실제적인 이유에서 엄격한 프랑스류의 개념에 찬성할 것인가 또는 미국학파의 주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레마르크가 창도하는 폭넓은 견해에 찬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요되고 있는데 이는 온당한 태도일 수 없다.

이러한 입장 위에 쏜교수가 지향하는 바는 역시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한 나라 안의 작자 연구에 있어서도 이른 바 작가간의 비교관독이라는 의식적인 비교작업을 수행하고 ② 다른 학문분야의 원용에 의한 종합적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32) 비교문학이란 특정한 한 나라의 영역을 초월한 문학의 연구임과 동시에 한쪽의 문학을 다른 쪽의 예술... 철학, 역사, 사회과학, 종교 등과 같은 어느 지식이나 신앙의 여러 분야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Henry H. Remak, Comparative Literature: It's Definition and Function in S/F. P. 3, Brought up-to-date in second edition 1971—奎圭察의 동저서 p.21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저들 몇 개의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 비교문학계의 단면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바, 비교문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프랑스식 비교문학에 의해 연구가 진행돼오다가 1970년대 하반기에 이르러 어떠한 한 방법을 골라서 원용한다기보다 두 방법을 조화, 지양하는 제3의 입장, 아니면 최근 국제학계의 동향에 보조를 같이 하여 확대된 비교문학의 입장을 택해가고 있는 것이다.

3. 국문학연구를 위한 비교문학의 방향

비교문학자가 아니더라도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스스로의 입장을 분명히 지니고 연구에 임해야 함은 일반상식이다.

비교문학이란 문학을 인간 정신의 특유한 기능으로서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역사와 비평과 철학에 관한 여러 언어 사이 또는 여러 문학 사이의 제현상에 대한 분석적 기술, 방법적, 시차적 비교 및 종합적 해석의 “학”이라는 것이 학계의 최신의 도달점이라 하겠다.³³⁾

국제간의 문학교류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문학이 사실상 학문으로 정착된지 1세기가 못 되었으나 그 演進과정에서 논란이 심했고 최근들어 그 영역이 복잡다기해져가고 있다. 他를 통해서 자를 알게 되고 타국문학의 비교를 통해 자국문학의 특성을 알게 된은 자명하다. 이처럼 비교작업은 문학연구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작가간의 연구에 있어서도 비교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 나아가서 인간문화의 소산물인 문학이 또 다른 인간이 이루는 문화적 영역 즉 미술, 건축, 음악과 같은 예술, 혹은 철학, 역사 그리고 사회과학(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자연과학, 종교 등의 영역과의 관련함에 비교문학적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프랑스파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영향연구는 원천을 탐색해내는 것에 그 가치비중을 두었고, 무엇이 이입되었고, 무엇이 제외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소재는 무엇을 취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가 등에 관한 진지한 물음이 적었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뤄지는 영향연구는 우리 문학사에 대한 지식을 넓혔은 물론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를 깊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립된 부분으로서의 문학이 아닌 것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려면 비교문학

33) 奎圭泰, 동거서,

의 영역은 넓혀져서 종합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여러 학문의 연구방법에서 촉구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은 방법론적 일면성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사실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확대되고 모험적이고 전통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모든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 보다 신속히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는 경향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요즈음의 관심은 사회학적, 정치학적, 경제학적, 종교학적 문제에 관심이 쏠리면서 인간의 생이라는 문제에 환원되고 있기도 하다.

이론면과 실제적 연구면에서 비교해보면 이론면보다 실제 연구에 쏠리고 있어 이론의 빈곤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주 상식적인 언급에 불과하긴 하나 되풀이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론면에 대한 연구와 작품연구가 항상 동등하게 이뤄지면서 모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문학의 개념, 이론, 과제 등에 대해 편린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이론은 작품연구에 실제로 적용되고 영으로 작품연구를 통해 이론이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비교문학에는 문학연구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모든 방법이 다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이 연구대상과 주제에 적합하다는 것이 논증되어야 하고 연구된 결과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가령 사회학적 고찰은 소설연구에, 운율분석은 소설연구보다는 서정시연구에 적용되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위와 같은 설명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李相和의 시를 사회학적 해석에 의해서, 春香傳을 운율분석에 의해 고찰한다는 것이 무조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은 어떠한 대상 혹은 주제에 더 적합하고 논의할 자료를 풍부히 제공한다는 것이다.

비교문학은 작품을 분석하는 관점 혹은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학연구 일반에서와 같은데, 다만 비교문학 고유의 전문적인 문제, 특별한 전문 지식, 방법적 종합이 촉구되는 것이다.

34) 여러 다른 문학들 상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행동에 관계되는 여러 다른 분야 특히 예술적, 이념적 예술과 비교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비교문학자들의 매다수의 의견이다. 가령 레마르크는 그의 Definition und Funktion der vergleichende Literatur Wissenschaft라는 논문(Horst Rüdiger, Komparastik, Stuttgart, Kohlhammer Verlag, 1973에 수록)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교문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번역문학에 대한 연구인데, 이것을 위해서 곧 彫琢된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전통의 상호영향관계 혹은 침투관계를 살피는 일은 언어와 문화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를 포괄한 연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공동작업이라는 것이 비교문학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본고에서 새삼스레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동작업을 중요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최근 십수년간 비교문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한 논쟁이 일고 있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개별적 정신과학연구에서는 어떤 확정된 주제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취급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문학자가 하나의 공동목표를 가지고 초국가적 문학사와 문학서술을 위해서 이러한 공동작업이 수행되어야 올바른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비교문학회와 같은 회합은 적극적인 지원하에 발전되어야 한다.

동, 서양 혹은 남, 북의 학자들이 어떤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공동작업을 하고 연구자들이 같은 과제를 가지고 논술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동기에 의해서 분과작업도 하면서 상호의견을 통해 보다 나은 견해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 이런 뜻에서 우리 나라의 비교문학자들이 국제비교문학회의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펴야 한다. 그러나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국제적으로 시야를 돌릴 뿐 아니라, 범위를 좁혀 서울과 지방의 비교문학자간의 교류, 고전문학전공자와 현대문학전공자간의 교류를 통해 자유로운 토론이 있어야 하고 실제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학회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보다 적극적 활동이 아쉽다.

이런 점에서 반가운 일은 최근 시인, 작가, 비평가, 비교문학자들간에 해외연구로 활기를 띠고 있어 李御寧, 鄭鍾和, 申東旭, 朴東奎, 鄭漢模, 鄭乙炳, 劉賢鍾씨 등이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지로 1개월 내지 1년간 체류 계획으로 출국하거나 이미 마치고 귀국도 했다는 보도이다³⁵⁾ 이같은 움직임은 문인들의 세계적 의식, 작품연구와 창작활동에 따른 폭넓은 수확 등 우리 문학의 공간확대란 점에서 뜻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35) <朝鮮日報>, 1981. 8. 13日 字 참조

국문학자로서 외국의 대학들 혹은 그에 딸린 연구소 등에서 2~3년 정도 외국문학의 이론과 연구를 실제로 접하면서 새로운 국문학연구방법에 대하여 끊임없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문학자의 시야를 넓히는 길도 되지만 동양문학에 관심이 있는 외국문학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한국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일도 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우선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보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즉 외국의 대학 혹은 연구소에서 재정 지원하고 동양학자들을 유치할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러한 정보를 신속히 알아내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문교정책에 따르면 유학의 길이 매우 용이해졌고 이에 따라 해외유학을 안내, 지도하는 연구소도 장차 설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정보 입수를 통해 국내 비교문학자들에게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 낼 곳도 바로 이 연구소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교문학연구의 필요성은 문학적인 과정을 포괄적이고 국민문학 상호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학연구자들 중에 비교문학이란 비교적 덜 발달한 국민문학이 자신의 독자적인 발달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국민문학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자극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는 수도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영향이나 작용의 문제만이 너무 강조되어 이것이 연구의 목표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즉 모든 영향의 연구가 일개의 수단이어야만 하는 곳에서 하나의 목적이 되어왔다는 것, 그리고 영향이 문학창작의 요인이나 독특한 원인으로서 단순한 방법론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영향에 대하여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H.블록이 지적한 것처럼 영향이란 문학이 발생하는 통로의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학작품은 한 예술품인 이상,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예술의 한 총체적인 체험인 것으로 무의식중에 다른 작가로부터 영향을 받아가며 한 작가에 의해 써어진다.

그런데 영향이 완전히 동화되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울 때 이의 파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어서 가시적인 것을 넘어서서 불가시적인 세계에까지 깊이 파헤쳐 그 속에 내포된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고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한

다. 환언하면 비교문학적 작업은 영향관계 탐색에만 그쳐 작품 자체의 본질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말이다. 따라서 비교문학의 목표는 문학 내적 혹은 문학 외적 사실들을 모두 고려하는 문학적 작용에 대한 전면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비교문학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함께 필연적으로 연구대상이 국민문학 내적인 혹은 국민문학 상호적인 과정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적 현상들간의 다양한 연관관계로 확대된다. 이렇게 될 경우 명심해야 할 것은 비교의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 현상들은 동질적이며 동일한 체계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맺 음 말

이상에서 국문학에서의 올바른 비교문학적 시도를 위한 과정의 반성이라는 관점에서 서구의 비교문학과 우리의 비교문학에 대한 과거와 오늘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프랑스의 비교문학은 영향관계는 기록으로 나타난 외적 증거의 모착이 이뤄진 연후에 결정된다는 것으로 너무 지나치게 외재적 입장을 취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이 자주 있었다. 사실상 문학연구는 작품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초기의 비교문학은 문학과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 별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오늘날 점차 관심이 깊어져 이에 대한 업적들이 나와 문학연구의 횡적 확대가 이뤄짐으로써 미국의 일반문학과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비교문학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의 일반문학은 비교와 영향은 문학연구의 한 방편으로 문학연구의 기본은 작품 자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문학과 다른 문학의 상관관계유무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有關한 증거란 내재적 증거를 의미하며, 기타 작가의 언명, 기록 등은 부차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문학에서는 두 문학사이의 유사관계가 아주 우발적인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프랑스의 비교문학에서는 국제간의 영향관계가 이뤄진 바탕 위에서만 문학 상호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면, 미국식 일반문학은 국제간의 영향관계를 전제로 한 문학 상호간의 비교가 아니라 그러한 전제 없이도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비교문학의 추세는 그 폭이 넓고 대담하며 다른 예술분야와의 비교연구가 활발하다.

우리 나라는 1950년대 비교문학이 도입되어 초기에는 주로 프랑스의 비교문학적 방법이 시도되었다. 1950년대 하반기에 미국의 일반문학이 도입되면서 1960년대에 더욱 적극적 시도가 이뤄지고 1970년대에 접어들어 프랑스의 비교문학은 미국식 일반문학을 택하던가, 이들의 조화를 통해 방법론적 종합을 이루는 등 비교적 다양한 방법론이 시도되었다. 이것은 비교문학의 시대적 추이가 그대로 들어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업적중 종합적 최근간의 성격을 지닌 전규태교수의 《比較文學》에서 주목되는 것은 국제비교문학계에서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한나라 안의 작가간의 비교관독이라는 의식적 비교작업이 수행되고 다른 학문분야의 원용에 의한 종합적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한 것은 국문학을 제외하고 외국문학이니, 국제문학, 세계문학을 운운함은 옳지 못하며 자국문학에 대한 철저한 이해 뒤에 비교문학이 운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비교문학이란 장마리 까레의 말처럼 어디까지나 “국문학사를 깊고 더하는 학문”으로 여기고 있으며 비교문학연구의 성과를 수용하여 풍운해진 각 “국문학”은 여타나 “국문학”을 넓은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포착한 “세계문학” 속에 흡수되어 이것이 곧 방 떠짐이 말한 “일반문학”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참고할 바가 큰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를 지니고 국제학계의 동향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면서 비교문학이라는 하나의 문학연구방법이 국문학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비교문학자의 일무일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金容稷, 《韓國近代文學의 史的 理解》(서울: 三英社, 1977)
- 2) 金淳東, 《韓國文學의 比較文學的 研究》(서울: 一潮閣, 1972)
- 3) 白鐵, 《文學概論》(서울: 新丘文化社, 1963)
- 4) 李慶善, 《韓國比較文學論考》(서울: 一潮閣, 1976)
- 5) 李裕榮 外 2人, 《韓獨文學比較研究》I (서울: 三英社, 1976)
- 6) 李在銑, 《韓國開化期小說研究》(서울: 一潮閣, 1972)
- 7) 李慧淳, 《比較文學》I (서울: 中央出版社, 1981)
- 8) _____, 《比較文學》II (서울: 中央出版社, 1981)
- 9) 全圭泰, 《韓國古典文學의 理論》(서울: 正音社, 1974)
- 10) _____, 《比較文學》—그 國文學의 研究—(서울: 二友出版社, 1981)
- 11) Eckardt, Andre, Geschichte der Koreanischen Literatur (Stuttgart : Kohlhammer Verlag, 1968)
- 12) Rüdiger, Horst, Komparastik (Stuttgart : Kohlhammer Verlag, 1973)
- 13) Van Tieghem, P., La Littérature Comparée, 金東旭 역, 《比較文學》(서울: 新陽社, 1959)
- 14) Wellek, René, Warren, Austi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Ltd(Middlessex, Harmoudsworth, 1966)
- 15) Wellek, René, Discrimination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1)